

3/ 여성과 자위대

카무플라주하는 여성의 역할과 젠더 주류화*

사토 후미카·유병완



사토 후미카(佐藤文香)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준교수. 전공은 젠더 연구, 군대/전쟁과 젠더의 사회학으로 2002년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대학원 정책/미디어연구과에서 박사(학술)학위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제6회 여성학연구 국제장려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軍事組織とジェンダー—自衛隊の女性たち』(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4), 공저로는 『ジェンダーと社会—男性史・軍隊・セクシュアリティ』(旬報社, 2010), *Militarized Currents: Toward a Decolonized Future in Asia and the Pacific*(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戦争社会学の構想—制度・体験・メディア』(勉誠出版, 2013) 등이 있다.

유병완(兪炳完)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전공은 젠더와 군대 연구로 20011년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으로는 「韓国女性軍人のプライドと困難—男性中心的な軍隊規範への順応に注目して」(『国際ジェンダー学会誌』, 第9号, 2011)(공저)가 있다.

* 이 글은 사토 후미카가 2010년과 2012년에 발표했던 논문에 유병완이 1947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회의사록을 분석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하여, 한국 독자를 위한 한 편의 논문으로

1. 머리말

20세기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이 남성의 영역이라 불리는 군사조직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서양의 많은 군대는 여성을 군대의 중심부로 편입시키려는 '제2세대 젠더 통합'을 시작했고,¹ 특히 이런 통합적 형태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기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전성기였기에 여성의 군대 참여는 여성운동의 '성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의 젠더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음모로 군대가 여성화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²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담론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모든 페미니스트가 군대의 젠더 통합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군대의 여성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여성의 군대 참여를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³ 또한 군대 내에서도 젠더 통합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은 군대 젠더 통합이 페미니즘의 음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군대가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대 기준을 점점 낮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에, 특정 부대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은 인재 확보에 부적절하다고 거부되었다.⁴ 이처럼 군대의 젠더 통합을 여성운동의 성과 혹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페미니스

로 새로이 집필한 것이다. 일본어로 작성한 후 유병완이 번역했다. Fumika Sato, "A Camouflaged Military: Japan's Self-Defense Forces and Globalized Gender Mainstreaming," *The Asia-Pacific Journal*, 10-36-3, 2012; Fumika Sato, "Why Have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cluded Women?: The State's 'Nonfeminist Reasons'," Setsu Shigematsu and Keith L. Camacho eds., *Militarized Currents: Toward a Decolonized Future in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이 글의 집필 과정에서 받은 『일본비평』 심사위원분들의 유익한 코멘트와 연세대학교 원재원 선생님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Helena Carreiras,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London: Routledge, 2006, p.117.

2 예로, Stephanie Gutmann, *The Kinder, Gentler Military: Can America's Gender-Neutral Fighting Force Still Win Wars?* New York: Scribner, 2000.

3 Anne W. Chapman, *Mixed-Gender Basic Training: The U.S. Army Experience, 1973~200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p.169.

4 Saskia Stachowitsch, *Gender Ideologies and Military Labor Markets in the US*, New York: Routledge, 2011, p.130.

트의 압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군대에서의 젠더 통합의 다면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오나 삭슨-레비(Orna Sasson-Levy)에 의하면 군대는 “과도하게 젠더화된 제도”다.⁵ 하지만 군대 내 젠더 편성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다. 군대 내 젠더 구조는 군대 내외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항상 변화해 왔다. 더욱이 군대의 젠더 통합은 때로는 페미니스트가 의미하는 젠더 평등과는 전혀 다른 전략적,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진행되었다.⁶

군대는 종종 시민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린다.⁷ 하지만 신시아 엔로(Cynthia Enloe)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군대는 “단순한 가부장제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다.⁸ 군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하게 동일화되며 독자적인 재정·노동력·물질적 자원을 통해서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⁹ 이로 인해 군대는 단순히 시민사회의 젠더 관계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¹⁰ 군대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행동이나 허용 가능한 역할을 정의하는” 근원적인 장(場)이 된다.¹¹ 군대는 젠더를 구축하는 중요한 장으로 젠더 연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필드인 것이다.

자위대가 ‘군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2013년 자위대 예산은 4억 8,600만 달러로 세계 군사 예산의 2.8%를 점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에 의하면 이는 세계 8위에 해당한다.¹² 두 번째로, 1950년 이후 자위

5 Orna Sasson-Levy, “The Military in a Globalized Environment: Perpetuating an ‘Extremely Gendered’ Organization,” *Handbook of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Jeanes, Emma L., David Knights and Patricia Yancey Martin eds., Chichester: Wiley, 2011, p.392.

6 Saskia Stachowitsch, *Gender Ideologies and Military Labor Markets in the US*, p.127.

7 예를들어, Anne W. Chapman, *Mixed-Gender Basic Training: The U.S. Army Experience, 1973~2004*, p.169.

8 Cynthia Enloe,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sation of Women's Lives*, London: Pluto Press, 1983, p.10.

9 Cynthia Enloe,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sation of Women's Lives*, p.11~12.

10 Francine D'Amico and Laurie Weinstein eds., *Gender Camouflage: Women and the U.S. Milita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p.5.

11 Francine D'Amico and Laurie Weinstein eds., *Gender Camouflage: Women and the U.S. Military*, p.4.

12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 2014년 4월 20일 접속).

대는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으며, 2012년 시점에서 22만 4,526명의 제복을 입은 전문직 인적자원(그 중 여성은 5.5%, 1만 2,350명)을 보유하고 있다.¹³ 세 번째로, 자위대는 핵무기 사용과 연구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F-15,¹⁴ 이지스함, 호크(HAWK) 방공 미사일과 같은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다. 네 번째로, 1990년대 이후 자위대는 해외로 파견되어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¹⁵ 이처럼 오늘날 자위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위대 군사력에 대한 제약이 약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헌법9조의 효력을 유지해 왔다.¹⁶ 공식적으로 ‘군대’로 언급되지 않는 자위대가 캄보디아나 이라크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에서는 국가적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제한이 무엇이든 간에 자위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군대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는 점과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헌법의 제재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위대를 카무플라주(camouflage)된 군대로 분석 하겠다. 카무플라주란 눈에 잘 띄는 것을 주위 환경에 동화시킴으로써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는 수단이다. 자위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스스로의 군사화과정과 군사적인 성질을 카무플라주해 왔다. 그리고 자위대가 카무플라주를 행할 때 여성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위대의 젠더 통합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표 1>이 보여주듯이, 자위대 여성의 수와 담당 업무는 확대되어 왔다. 군대 내에서 여성이 적은 것이나 완전한 군대 젠더 통합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특히 젠더 통합 정도에 있어서 매우 낮

13 防衛省, 『日本の防衛 平成25年度版』, 防衛省, 2013, 392쪽.

14 방위성은 최신 F-35 전투기 도입을 공표했다. 『朝日新聞』 2011년 12월 20일(夕刊).

15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외교/정치/경제적으로 또한 후방에서 모든 미국의 전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990년 이전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신중하게 피하고 있었다.

16 헌법 제9조는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라며, 국권의 발동에 준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표 1〉 자위대의 주요 여성통합정책

	주요 사건	젠더 정책	여성의 직무 영역 확대
1950	경찰예비대 창설	민간인 간호부 고용	간호직에만 한정
1952	보안대(保安隊) 발족	보안관(保安官)으로서 간호부를 채용	
1954	자위대 발족		
1967		육상자위대 일반직에 여성 채용 시작	지원직으로 한정인사(총무, 회계, 통신)
1968		육상자위대 부인자위관(WAC) 발족	
1974		해상/항공 자위대에 여성 부인자위관(WAVE · WAF)제도 발족	
1979	UN에서 여성차별철폐조약 채택		
1985	일본이 여성차별조약 비준	방위医科大学 여성 입학 실시	
1986	고용기회균등법 시행	방위개혁위원회 '부인자위관(일반) 5,000명 체제, 직무 영역 확대'를 결정	직무 영역 확대[항공기체 수리, 차량 정비, 방공 운용(高射運用), 항공관제 등]
1991		부인자위관 직무 영역 배치에 관한 3원칙 채택	① 전투 영역, ②전투 지원 영역, ③육체적 부담이 큰 영역에는 배치 제한
1992	국제평화협력법 시행	방위대학교에 여성 입학 실시	
1993		전 영역 개방	전 영역 개방, 단 모성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투기나 잠수함 등의 배치 제한
1999	남녀공동참획(参画)사회 기본법 시행		
2000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채택		
2001		해상자위대 최초 여성 장군직(将補, 준장) 탄생	
2002		PKO요원으로서 여성을 처음으로 동티모르로 파견	
		방위청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부인자위관(일반)1만명 체제'와 직무 영역 확대를 결정	
2004		여성을 이라크에 파견	

	주요 사건	젠더 정책	여성의 직무 영역 확대
2007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승격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가 2대 방위대신으로 취임	
		여성 배치 제한에 대한 재고 결정	
		항공자위대에서 퇴관(退官)하는 여성자위관이 장군직(将補)으로 승진	
2009			직무 영역 확대(호위함, 회전익초계기 등)
2011		항공자위대 첫 여성 장군직(将補) 탄생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¹⁷

지금부터는 국제 사회의 젠더 주류화라는 시점에서 자위대 여성의 역사를 4단계의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UN에 따르면 젠더 주류화는 젠더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 또한 남녀의 관심과 경험을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차원으로 고려하는 전략”을 의미한다.¹⁸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젠더 평등이라는 목적으로 자위대에 여성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젠더 주류화 속에서 자위대원이 된 여성은 자위대가 군대이고 군대 임무를 행한다는 점을 카무플라주하도록 이용된 것이다.

17 Helena Carreiras,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Carreiras는 NATO에 속하는 국가의 여군 통합 패턴을 분석하여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구미 모델’은 여성통합도와 비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 (2) ‘북유럽모델’은 여성통합도가 높지만 비율은 다소 제한적인 국가들, (3) ‘남미모델’은 통합도가 중/하 정도이지만 상당한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 (4) ‘혼합지역모델’은 여성통합도와 비율이 모두 낮은 레벨의 국가들이다. 사토는 Carreiras의 젠더통합지표를 사용하여 일본이 4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을 확인했다(Fumika Sato, “Why Have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cluded Women?: The State’s ‘Nonfeminist Reasons’”). 군대 여성에 대한 자료는 아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Joni Seager, *The Penguin Atlas of Women in the World*, 4th ed., New York: Penguin Books, 2009, pp.102~103.

1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1997*, A/52/3, September 18, 1997.

2. 재출발(1950년~1960년대 전반): 제국군과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점령 하에서 일본은 완전히 비무장화되었고 군 산업은 붕괴되었다. 1946년 공포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과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대립, 1940년대 후반 중국공산당의 대두,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워싱턴 외교정책 담당자는 세계 규모의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위치를 보조적 동맹국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7월 8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에게 일본 경찰력 증강에 관한 각서를 전달했고,¹⁹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군사력은 경찰예비대로 시작하게 되었다. 1951년 48개국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그날, 일본의 미군 종속을 확립하는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안보조약에서의 일본의 위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52년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지원 하에 다시 한번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개명하고 재편성했다. 이 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국내 치안 유지라는 당초의 목적을 삭제했다. 이후 1954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고 보안대를 오늘날 일본군으로 알려진 자위대로 개명, 발족한다.

이러한 재출발 단계(1950년대~1960년대 전반)에서 경찰예비대는 제복을 입은 남성만으로 구성되었다. 전투를 금한 이 작고 미숙한 조직 안에 여성은 소수의 간호직으로 속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민간 간호부(看護婦)로 분류되어 경찰예비대 제복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1952년 보안대로 바뀌면서 간호부들은 보다 제도화되어 조직에 통합됨으로써 군복을 입게 되었다.

여군의 역할을 국가횡단적(cross-nationally)/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메디시갈(Mady Wechsler Segal)은 “젠더 분리 의식이 매우 높을 때, 군대는 여성이 민간 노동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야와 비슷한 군대 내의 기능을 여성에게 의

19 防衛庁, 『自衛隊十年史』, 防衛庁, 1961, 19쪽.

존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⁰ 그러한 직무로서 간호는 “종종 여성에게 가장 먼저 개방되는 군대 임무였다.”²¹ 시갈의 관찰은 1950년대 이후 일본의 군사사(軍事史)에도 적용된다.

새로이 자위대를 만든 남성 관료들은 여성을 ‘여성다운’(女性らしい) 군 간호부로 포섭하려고 했던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 간호부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와 군 계획자 및 지지자들은 여성을 간호부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었다. 실제로 방위청의 전신인 보안청은 육군 병원의 총부장(総婦長: 간호부장)이었던 인물에게 입대를 간청했다고 한다.²²

국회의사록에는 여성 포섭을 통해 이 새로운 군대를 카무플라주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1952년 내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불려온 도쿄대학 헌법학자 다나카 지로(田中二郎)는 보안대는 과거의 제국군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역할에서 그 차별화를 시도했다.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여성을 채용하고 여성대원을 준비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또한 대민(對民) 관계에서도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현재 경찰예비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지만, 새로이 거듭나는 보안청의 조직 문제로도 한번 고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²³

경찰예비대의 과반수가 과거에 군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²⁴ 일본 정부는 경찰예비대 설립 이후 제국군의 부정적인 유산을 감추면서 군사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씩씩해 왔다. 전전(戰前)의 군대

20 Mady Wechsler Segal, “Women’s Military Roles Cross-Nationally: Past, Present, and Future,” *Gender & Society*, 9(6), 1995, p.767.

21 Mady Wechsler Segal, “Women’s Military Roles Cross-Nationally: Past, Present, and Future,” p.767.

22 『朝日新聞』 1952년 11월 19일(夕刊)/1952년 11월 22일(朝刊).

23 「第13回参議院内閣委員会40号」, 1952년 6월 11일.

24 防衛庁, 『自衛隊十年史』, 247쪽.

에서 간호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자위대의 간호부 도입은 제국군과의 유사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²⁵ 하지만 제국군 간호부가 민간인으로 고용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자위대 간호부는 제복을 입은 일원으로서 보다 강하게 공식적으로 조직에 통합되었다. 전후 자위대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여성 간호부를 끌어 들인 것은 제국군과의 연속성을 카무플라주함으로써 자위대가 군국주의적인 제국군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3. 유대 강화(1960년대 후반~1970년대): 시민 여러분과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이른바 ‘유대 강화’의 시기에 자위대의 젠더 구성은 상당히 변화했다. 일본 정부의 군 관련 정책입안자는 자위대 여성의 수와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

1967년 육상자위대에서 ‘지원’직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은 다음해 부인자위관제도(WAC) 발족으로 이어졌다. 남성 관료는 남성자위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남성다운’ 임무에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민간 출신 관료(背広職員)인 가이하라 오사무(海原治, 1965년부터 1966년까지 방위청장관 관방장)는 자신의 정책 인식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연히 사이타마(埼玉) 현에 있는 보급창을 보러 갔습니다. ...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보급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오히려 여자가 능숙하고 세밀하지 않은가. 특히 이전 전쟁에서는 부인정신대가 상당히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차하면 일하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보급창 같은 일에서는 말이죠. 건장한 남

25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추정치 5만 명 이상의 간호부가 군대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군의 민간 고용자였다. 内藤寿子, 『戦争と看護—従軍看護婦の位相』, 早川紀代 編, 『軍国の女たち』, 吉川弘文堂, 2005, 70쪽.

자가 밖에서 기관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여성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²⁶

또 다른 힘이 군대의 젠더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오나 삭슨-레비가 언급하듯이, “글로벌화는 전세계의 군대(특히 서양 군대)의 젠더 관계에 변화와 발전의 촉매로서 기능했다.”²⁷ 군대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강력하고 지배적인 군대를 모방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²⁸ 당연히 하계도 미군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미군의 충실한 학생으로서 일본은 미군의 젠더 구조를 자위대의 모델로 삼았다.

가이하라는 미 육군여성부대(WAC) 시찰에 파견된 참모장교(幕僚)가 미국의 방위주재관으로부터 여성 사관의 필요성을 설득당했는데, 이것이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증언한다.²⁹ 다나카 쇼지라는 장교가 1965년 4월에 미 육군여성부대(WAC)센터를 시찰하러 방문했다. 당시 미군내 여성 비율은 2%에 불과했지만, 그는 펜타곤이 어떻게 여성을 통합하고 있는지를 배웠다. 방위주재관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며 WAC를 잘 이해하고 있던 마쓰카네 히사토모는 다나카가 일본 WAC의 설립을 지지하도록 설득했다.³⁰ 다나카의 귀국 이후, 육상자위대는 WAC센터 시찰을 위해 간호자위관 4명을 미국으로 파견했다.³¹

냉전기에 미 WAC센터는 일본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의 외국인 여성사관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외국인 여성사관 리스트를 보면, 그녀들이 미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26 C.O.E. 오랄·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 『海原治(元内閣国防会議事務局長)オーラルヒストリー 上巻』, 政策研究大学院大学, 2001, 258~259쪽.

27 Orna Sasson-Levy, “The Military in a Globalized Environment: Perpetuating an ‘Extremely Gendered’ Organization,” p.394.

28 Orna Sasson-Levy, “The Military in a Globalized Environment: Perpetuating an ‘Extremely Gendered’ Organization,” pp.398~399.

29 Center of Excellence Oral Policy Research Project, 2001, p.259.

30 가이하라는 재미 방위주재관이 자위대에서 여성을 많이 활용하도록 설득한 일을 “세뇌”라는 단어로 표현했다(C.O.E. 오랄·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 2001, 259쪽).

31 “Foreign Officers Trained at U.S. WAC School,” the U.S. Women’s Army Memorial 소장.

추측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미 WAC 센터에 가장 많은 여성사관을 파견했다. 1957년부터 1967년 사이에 21명의 한국인, 18명의 베트남인 여성이 훈련을 받았다.³² 1967년 11월 1일 미 사령관은 ‘자유세계의 방위’에 대해 일본과 베트남 여군의 잠재적 역할을 지적했다.³³

그녀들이 배운 것은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육군여성보조부대(WAAC, WAC의 전신) 부대장(director)이었던 오베이터 칼프 하비(Oveta Clup Hobby)는 1942년 여성부대가 “전장으로 돌진하는 아마존(amazon; 신화 속의 여성 무인)”이어서도 “천방지축”이어서도 안 된다고 표명했다.³⁴ 군대가 여성을 ‘남자같이’(mannish) 만든다는 또는 레즈비언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공포심을 완화시키기 위해, 군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WAAC/WAC 신병에게 이성애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했던 것이다.³⁵

1970년대에 해산/통합될 때까지 미국 WAC의 리더들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유지했고, 일본 여학생들은 여기에 일본적 감성을 적용하면서 이 교육방침을 모방했다. 1968년 육상자위대 부인자위관 교육대 초대 대장이 된 마에다 요네코(前田米子)는 여성자위관에게 여성다움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면서 “우아하게, 아름답게, 암전하게, 마음의 미소를 잊지 않도록”을 교육방침으로 내걸었다.³⁶ 이것은 자위대가 여성 유입에 대한 남성자위관 그리고 여성자위관 부모들의 거부 반응이나 우려를 고려한 결과였다. 이 방침은 “강하게, 밝게, 아름답게”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위대에 여성을 통합하는 남성들의 결정이 젠더 평등과는 다른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것은 젊은 남성의 인

32 “Foreign Officers Trained at U.S. WAC School.”

33 “Proposed Remarks for the Commandant on Foreign Student’s Holiday, 1 November 1967,” the U.S. Women’s Army Memorial 소장.

34 *New York Times*, April 17, 1942, p.8.

35 Leisa D. Meyer, “Creating G.I. Jane: The Regulation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in the Women’s Army Corps during World War II,” *Feminist Studies*, 18(3), 1992, p.585.

36 婦人自衛官教育隊, 『30周年記念誌』陸上自衛隊婦人自衛官教育隊, 1998, 13쪽.

력 부족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고도경제성장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일본 민간시장은 젊은 일본 남성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자위대는 최적의 젊은 남성을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모집 담당자는 거리로 나가 저학력의 무직인 젊은 남성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대원들은 범죄를 일으키거나, 빚더미에 앉거나, 부하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게다가 자위대를 떠나는 비율도 매우 높았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자위대는 유능한 신병의 보고(寶庫)로서 여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여성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위대 관료들은 자위대를 향한 대중의 지지를 높이고, 차세대 자위대를 위한 ‘현명한’ 어머니를 육성하고자 했다. 육상자위대 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 내의 한 남성은 WAC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부하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여성을 입대시키는 일은 당시 일본에서는 가족 혹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입대할 때와 비교하면 (그 여성의 부모는) 자위대를 잘 알려 하고, 국방에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이 몇 배로 늘어갈 것이다. 또 그런 건전한 정신을 가진 여성의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반드시 이어받고 차세대를 젊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남성 직원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퇴역 후의 여성 대원은 국가 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위대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현명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자위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자위대에 여성을 참가시킨 이 시기에는 미일안보조약 반대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배경 때문에 일부 자위대 직원은 여성의 참가가 자위대

37 사토 후미카와 육상자위대 인사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1999년 10월 29일).

38 婦人自衛官教育隊, 『婦人自衛官の制度及び教育隊のあるべき姿』, 陸上自衛隊婦人自衛官教育隊, 1998, 106쪽.



〈그림 1〉 자위대 모집 포스터, 1976년



〈그림 2〉 자위대 모집 포스터, 1973년

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여성자위관이 도입된 이후, 많은 여성이 홍보(広報) 부문에서 일하게 되었다. 미군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오키나와(沖縄)에서 여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은 자위대가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키나와의 주권이 이양된 1972년, 여성자위관은 자위대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키나와 홍보 부문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포스터를 살펴보면 여성자위관이 자위대의 군사적 이미지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1976년 자위대 모집 포스터다. 여기에서 4명의 여성 자위대원과 3명의 남성 자위대원이 둘러싼 가운데 2명의 남성 자위대원이 팔씨름을 하고 있다. 카피는 “우정이 싹트고, 신뢰가 생겨난다”라는 문구다. 미소 짓고 있는 여성 자위대원은 자위대의 군사적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사비네 후루슈토크(Sabine Frühstück)는 군대 홍보가 어떻게 군대 이미지를 선별하고 미화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준다.³⁹ 자위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39 Sabine Frühstück, “AMPO in Crisis? US Military’s Manga Offers Upbeat Take on US-Japan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New York: Japan Focus*, 2010, 45-3-10.

이미지는 분명 ‘시민’이었다. 방위청이 처음으로 1970년 백서를 간행했을 때, “자위관은 일반 시민과 같은 존재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⁰

자위대의 모집 포스터는 군사적 이미지를 감추고, ‘시민으로서의 자위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여성의 활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1973년 모집 포스터인데, 자위대원과 시민들의 친밀하게 잘 어우러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5명의 남성 친구와 2명의 여성 시민이 둘러싸고 남성 자위관이 가운데 위치해 있다. “우리들, 청춘세대(青春期生)! 인간, 친구, 우정, 어제, 오늘, 내일, 신선한 심적 교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라는 카피와 함께, 이 포스터는 전쟁이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즐거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스터를 통해 비군사적인 자위대와 시민과의 우정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는 여성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확장(1980년대~1990년대): 선진적인 조직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일본은 미국과 친밀한 협조 관계 속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갔다. 1980년대 이후 자위대는 주로 미국과 함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 또는 태평양군사훈련(PACEX) 등의 광범위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했다. 또한 1992년부터는 UN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UNTAC)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수상을 역임한 매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人)였다. 나카소네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겠다고 공언하며 GNP 1%로 제한된 방위비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개시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40 防衛庁, 『日本の防衛 昭和45年度版』, 防衛庁, 1970, 55쪽.

일본의 제한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시기 자위대 여성의 역할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버블시기에 국내 노동시장은 호황을 누린 덕에 자위대는 남성 대원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정책 입안자들은 남성만큼 호경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1991년 여성 자위관 수는 8,040명, 3.4%로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이는 1986년 4,233명, 1.7%와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⁴¹

자위대의 젠더 통합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UN과 같은 글로벌 제도에 의한 외적 압박(pressure)이었다.⁴²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국에게 성차별을 없애도록 하려는 UN조약인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과 그 비준이었다.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의 비준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고용 면에서 기회와 대우를 남녀 동등하게 규정하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하게 된다. 시같은 “군의 여성 대표성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은 성(性)에 근거한 구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⁴³ 1986년 이 법률이 시행되자 그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방위청 관료에 의해 자위대에서 여성의 자리와 직종을 확대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개혁’으로 ‘남성화’된 직무—엔지니어(技師), 포병, 관제관—를 담당하는 여성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여성에게 개방된 자위대 직무의 비율은 39%에서 75%로 늘어났고 직무는 인사, 총무, 회계, 간호, 통신 등 이른바 ‘전통적인’ 여성직의 틀을 넘게 된다.⁴⁴

CEDAW는 변화의 방아쇠가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를 페미니스트의

41 『日本の防衛 昭和62年度版』, 161쪽; 『日本の防衛 平成4年度版』, 324쪽.

42 Orna Sasson-Levy, “The Military in a Globalized Environment: Perpetuating an ‘Extremely Gendered’ Organization,” p.396.

43 Mady Wechsler Segal, “Women’s Military Roles Cross-Nationally: Past, Present, and Future,” p.769.

44 민간 출신 직원에 의하면 이 ‘개혁’의 결과 여성의 직무 영역 개방율은 39%에서 75%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배치된 직무 영역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에 넣을 수 없다(国会議事録, 「第107回衆議院内閣委員会4号」, 1986년 10월 28일 참조).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칼 위간드(Karl L Wiegand)는 1979년에 총리부와 노동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관료들이 “세계의 선진 산업국에게 일본을 진보적인 근대국가로 보이게 하려고” 많은 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⁵ 즉 그들의 결정은 젠더 평등이 아니라 주요 국제동맹국에게 일본의 이미지를 ‘근대적’, ‘민주적’으로 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자위대는 신병모집국(新兵募集局)에 여성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여성 자위관을 지역의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시켜 미인대회 우승자인 여성 자위관의 이미지를 이용하려고도 했다. 예를 들면, 어느 여성 자위관은 ‘미스 고치’(ミス高知)가 되어 자위대의 선전활동에 공헌했다. 이러한 전략은 ‘와인 레드작전’(operation wine-red)이라 불렸고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⁴⁶

1992년 정부는 간부 후보생으로 방위대학교(NDA)에 여성을 입학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결정으로 여성에게 상급 간부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여성이 의사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도 CEDAW가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 정부가 CEDAW의 비준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리부 직원은 젠더 평등 원칙에 준하여 방위대학교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부와 방위청 간의 길고 긴 싸움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관료나 국회의원이 전통적인 표현으로 그 변화를 정당화하려 한 점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자민당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가 방위대학교의 여성 입학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45 Karl L. Wiegand, “Japan: Cautious Utilization,” *Female Soldiers—Combatants or Noncombatant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Goldman, Nancy Loring ed.,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92, pp.186~187.

46 『毎日新聞』 1993년 4월 30일(夕刊).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학생이 들어오면 오히려 자위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방위대에 가서 확실히 국가의 안전을 지키자, 그러면 좋은 여자와 결혼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⁴⁷

덧붙여 말하자면 정부 측 인사는 여성의 지위 향상보다 정부기관의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방위백서』는 시민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자위대도 여성에게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국회의사록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자위대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자위대가 선진적이고 평등적이라고 여겨졌고, 방위청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남녀 평등한 조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⁴⁹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성에게 방위대학교 입학자격이 없다고 지적⁵⁰되었으며, 여성을 (남녀평등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성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등장한 것이다.⁵¹

이러한 가운데 방위청은 진보적인 조직이라는 자위대 이미지를 만들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1992년 방위청은 ‘전투’ 직무 영역을 포함하여 여성의 직무 영역 배치 제한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성 자위관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방위청의 한 직원이 “여성에게 개방된 세계적으로 선

47 국회의사록 「第118回衆議院内閣委員会6号」 1990年 5月 24日. 이외에도 공명당 구로야나기 아키라(黒柳明)는 “선두에 서서 병사를 지휘하는 것만이 장교의 임무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으며, 민사당의 누키야마 에이코(抜山映子)는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여성은 그러한 군사행동에는 적합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第102回参議院外務委員会16号」 1985年 6月 6日).

48 『日本の防衛 平成4年度版』, 180쪽; 『日本の防衛 平成6年度版』, 211쪽.

49 민간회사에서 여성은 커피(차) 당번 등의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자위대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고 지적한 공명당의 시오데 케이스케(塩出啓典)의원의 발언(「第65回参議院通信委員会3号」 1971. 2. 18)이나 외무성에 여성 문화 개방을 요구하며 방위청에는 이미 여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민사당의 우케다 신키치(受田新吉)의 발언(「第71回衆議院内閣委員会14号」 1973年 4月 12日)을 예로 들 수 있다.

50 「第102回衆議院外務委員会, 文教委員会連合審査会1号」 1985年 5月 30日(外務省国際連合局長 山田中正).

51 「第118回参議院地方行政委員会4号」 1990年 6月 1日(日本社会党 栗村和夫).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1999년에는 자위대의 성추행 문제, 2001년에는 육아환경 문제가 추궁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면 이러한 자위대를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진화(最先端)된 직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 출신 남성 직원 일부는 이러한 개혁에 열심히 동참했다.⁵²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미카나기(御坐)가 지적하듯이, “일본이 일단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에서 확고한 위치에 다다르자, 정책결정자들은 일본이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전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⁵³ 냉전 종결 직후에 겔프만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90억 달러를 미 연합군에 지원했지만 자위대를 전투 지역에 파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적인 (특히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느껴서 외교정책의 변화를 열망하기에 이르렀다.⁵⁴ 그 결과 정부는 국제평화유지협력법을 통과시켜 1992년에 자위대를 캄보디아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시킨다. 1994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연합내각의 수상이 되자,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및 지하철 사린가스사건에서 자위대의 구조활동덕에 자위대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순풍 속에 1999년 주변사태 안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야심적인 자위대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자위대를 해외에 내보내려는 야망과 “여성에게 개방된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같은 것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방위대학교에 소수 여성을 엘리트 간부 후보생으로 입학시키고, 전투직과 비전투직을 여성에게 개방한 결정이 젠더 평등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데, 자위대 및 정부는 여성을 포스터 모델로 이용해 일본 내외에 자위대가 선진적인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군사적 확장을 카무플라주하려고 한 것이다.

52 『毎日新聞』, 1993년 1월 16일(夕刊).

53 Yumiko Mikanagi, *Masculinity and Japan's Foreign Relations*, Colorado: First Forum Press, 2011, p.82.

54 Yumiko Mikanagi, *Masculinity and Japan's Foreign Relations*, pp.93~94.

5. ‘국제공헌’(2000년대~): 우리들은 평화유지자

1999년 정부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1세기 일본에서 남녀 공동 참여사회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정부/자치체/시민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자위대의 젠더 통합은 더욱 진행되었다. 2002년 UN 동티모르 지원 임무에는 여성 자위관이 처음으로 PKO 요원으로 포함되었고, 이후 여성 대원이 UN 평화유지 임무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2004년에는 일본 정부가 비전투 지역이라 판단한 사마와라는 이라크 남부 도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여성 자위관이 제1파견대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당연히 이를 전투 지역 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위대도 전투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파견은 헌법 9조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정부는 총 약 5,500명의 육상 자위관을 이라크로 보냈고,⁵⁵ 100명 단위의 각 부대에는 약 10명의 여성이 통신, 보급, 간호직으로 근무했다.

국회의사록에서 자위대 해외 파견을 둘러싼 질의 응답을 보면 종종 여성 자위관의 존재를 언급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들 들면, 동티모르 파견 당시 “자위대 제군(諸君)이 여성 자위관과 어울려 땀을 흘리면서 동티모르의 국가 건설과 여러 가지 국토 정비에 힘쓰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⁵⁶ 2004년에는 가혹한 환경인 이라크에 자위대원으로 파견된 여성 자위관의 모습,⁵⁷ 지역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모습, 지역민과 충돌을 피하고 융화하는 역할을 해내는 여성 자위관의 모습⁵⁸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2010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과 2학년 아이의 어머니인 한 자위관이 인도양

55 http://www.mod.go.jp/j/approach/kokusai_heiwa/list.html(최종 검색일: 2014. 4. 20).

56 「第154回衆議院武力攻撃事態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委員会」2002년 5월 7일(内閣総理大臣 小泉純一郎).

57 「第159回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2号」2004년 3월 16일(自民党 舛添要一).

58 「第161回参議院イラク人道復興支援活動など及び攻撃事態等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委員会」2004년 12월 13일(防衛庁長官 大野功統).

에서 귀환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자위대 내 탁아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⁵⁹ 약자와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는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해외에서 군 임무에 힘쓴다는 이러한 모습은 그 임무가 이타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사마와 지역의 위험성이나 이라크에서의 자위대 임무를 카무플라주하는 데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카무플라주는 해외로 파견된 여성 자위관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0일 『고메이신문』(公明新聞)을 보면, 당시 간사장은 “간호사이기도 한 여성 자위관이 숙영지(宿營地)에서 병원까지 74번 외출했지만 한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한 말을 언급하면서, 사마와가 안전한 비전투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위대 활동과 안전보장 문제를 주로 보도하는 『아사구모신문』(朝雲新聞) 2005년 1월 6일자에는 당시 오노(大野) 방위청 장관이 지역민 아이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고, 칠석(七夕)날을 같이 보내는 여성 자위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자위대가 점령군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변화는 자위대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젠더 통합을 진행하면서 2007년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했다. 같은 해 여성의 배치 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09년에는 호위함, 회전익 초계기 등 몇 개의 포지션이 개방되었다.⁶⁰ 또한 방위성은 일부 부대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등, 자위대에 여성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일가정 양립(work life balance)을 위한 환경 정비도 시작했다.⁶¹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킨 것일까?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절박한 자위대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needs)이고, 두 번째는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젠더 주류화다. 2000년 10월 31일에 채택된 UN 안전보장이

59 「第174回衆議院安全保障委員会4号」2010年 4月 9日(防衛大臣 北澤俊美).

60 防衛力の人的側面についての抜本的改革に関する検討会, 「防衛力の人的側面についての抜本的改革報告書」(2007年 6月 28日), 52~53쪽.

61 『日本の防衛 平成23年度版』, 407쪽.

사회 결의안 1325호는 평화 창조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경험을 인식하고 평화/안전보장에 관련된 활동에 여성 참가를 증대시키며, 젠더 관점을 도입하도록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⁶² 이 정책에 관련해 일본 정부도 2000년 이후 남녀공동 참획계획(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에서 ‘국제공헌’을 위한 평화유지 활동에 여성 수를 늘릴 것을 선언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젠더 주류화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여성을 포섭하는 군의 의도가 군사력 확장인지, 젠더 평등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⁶³ 여성 자위관은 바야흐로 국제 평화유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내에서 여성 자위관들은 전투 지역의 위험성과 자위대 임무의 이미지를 카무플라주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리더에 부합하는 일본 이미지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군사화 프로세스는 전시의 군대 증강뿐 아니라 평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변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시아 엔로는 군사화의 의미를 “무엇인가가 서서히 군대의 제도나 군사주의적인 기준에 통제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⁶⁴ 사사키 도모유키(佐々木知行)가 세밀하게 살펴본 것처럼, 전

62 예를 들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 (UN SCR 1325)*, New York: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2006.

63 이는 탈민족적(postnational) 군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Annica Kronsell, *Gender, Sex, and the Postnational Defense: Militarism and Peacekeep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3~14).

64 Cynthia Enloe,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291.

후 일본은 자위대의 존재를 보편화하고 그러한 필요성(needs)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해 왔다.⁶⁵ 대부분의 일본인이 헌법 제9조와 자위대의 존재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군사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군사화 과정을 젠더 관점에서 탐구해 자위대가 여성을 포섭해 온 이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이용해 왔음을 규명했다. 즉, 자위대는 스스로를 제국군과 구별하기 위해, 남성에게 ‘남성다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미일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남성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여성에게 국가 안전 보장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자위대를 향한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성애자인) 남성 신병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적 동맹국의 눈에 ‘근대적’, ‘민주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위대의 공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성을 드러내기 위해, 안전하고 이타적인 평화유지자라는 자위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 전투 지역을 카무플라주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해 왔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프로세스 안에서 자위대의 젠더 평등을 요구하는 일본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일본 전후 여성운동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전후 일본 군사조직이 처음부터 지원제였다는 점, 여성운동이 군대를 평화 획득의 중요한 장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귀결된 결과였다.⁶⁶ 전미여성기구(NOW)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군대의 여성 포섭을 위해 투쟁하고, 여성의 군대 참가와 승진을 젠더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본 군사주의 부활을 깊게 우려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지원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65 Tomoyuki Sasaki, *An Army for the People: The Self-Defense Forces and Society in Postwar Japan*, Michigan: UMI, Dissertation Publishing, 2009, p.10.

66 미국은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했고 많은 국가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프랑스는 2001년, 포르투갈은 2004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다(<http://www.mofa.go.jp/mofaj/area>, 최종 검색일: 2014. 4. 20).

일본의 특이한 배경 때문에 우리들은 군사화 프로세스를 추구(追究)할 수가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젠더 통합 추진에 관한 군의 독자적인 의도와 젠더 평등(그리고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자위대의 군사적인 성질을 카무플라주하는 데 이용된 사실은 분명하다. 제1단계(1950~1960년대 전반)에서는 자위대가 제국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제2단계(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시민 및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제3단계(1980년대~1990년대)에서는 자위대의 군사적 확장에 공헌하였고 자위대는 선진화된 조직의 상징이 되었다. 제4단계(2000년대 이후)에서는 자위대의 군사 임무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만들고 평화유지 활동을 행하는 데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여성 군인을 군대의 폭력적·공격적 성질을 카무플라주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9·11 이후 많은 나라에서 전쟁 프로파간다에 여성 군인 이미지가 등장했다. 이 여성들은 ‘테러와의 전쟁’의 어두운 면을 카무플라주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전쟁으로 표상하는 데 이용되었다. 억압된 아랍 여성을 구한다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용감하고 자유로운 여성 병사 이미지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⁶⁷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온 젠더 주류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 해병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FET(Female Engagement Teams)를 만들었다. 미국 군대는 FET가 현지 여성과 아이들에게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배우고 여성들의 요구를 이해하여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FET는 여군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적 규범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현지의 여성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FET 여군들은 여성의 기업(起業)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이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경찰관을

67 Saskia Stachowitsch, *Gender Ideologies and Military Labor Markets in the US*, 2011, p.124.

돕고 여성센터를 설립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⁶⁸

우리들은 이러한 활동의 의의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군사화를 젠더 관점에서 연구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활동이 카무플라주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국, 그 외의 장소에서 벌이는 이렇게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군대의 폭력성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터프하고 상냥한 ‘평화의 전사공주(戰士姫)’는 죽이고 상처 주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치유하며 건설한다.⁶⁹ 이러한 이미지는 진실일까?

마지막으로 카무플라주에 은폐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카무플라주는 오히려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알아채지 못하게 하며 무심코 지나치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2011년 일본에서는 3·11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 직후 10만 명이나 되는 자위관이 동북 연안의 피해 지역으로 파견되었다.⁷⁰ 그들은 수색, 구제의 임무를 실시했고, 일부 임무는 ‘도모다치(친구) 작전’으로 미군과 함께 수행되었다.⁷¹ 그 결과 자위대의 호감도는 높아졌고 많은 아이들은 자위관이 되려는 동경을 품게 되었다.⁷² 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고, 돌보며, 피해 지역의 부흥에 노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1년 연말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 원칙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정권 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防衛装備移転三原則)으로 전환되었다.⁷³ 일본의

68 FET에 관해서는 <http://regionalcommandsouthwest.wordpress.com/about/female-engagement-team-usmc>(최종 검색일: 2014. 4. 20).

69 위트워스의 “평화의 전사왕자”를 수정한 용어이다. Sandra Whitworth, *Men, Militarism & UN Peacekeeping: A Gendered Analysis*,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4, p.12.

70 <http://www.mod.go.jp/j/press/news/2011/12/26b.pdf>(최종 검색일: 2014. 4. 20).

71 ‘도모다치(친구) 작전’은 물론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자비심 넘치는 군사 임무는 아니다. 이 임무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半田滋, 『3·11後の自衛隊—迷走する安全保障政策のゆくえ』, 岩波書店, 2012, 26~30쪽).

72 2011년 내각부가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97.7%가 대지진이 발생한 북동연안의 자위대 활동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자위대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수치는 역대 최대인 91.7%를 기록했다. ‘도모다치(친구) 작전’에 대해서는 79.2%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http://www8.cao.go.jp/survey/h23/h23-bouei/index.html>, 최종 검색일: 2014. 4. 20).

73 『朝日新聞』 2011년 12월 27일(夕刊); 『朝日新聞』 2014년 4월 1일(夕刊).



〈그림 3〉 '적극적 평화주의' 광고 사진

중요한 안전보장정책은 살상, 파괴용 무기 수출을 억제했는데,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나 장비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자위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마자 군사정책이 규제에서 탈규제로 변경된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하고 정권 복귀를 이룩한 아베정권이 헌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⁷⁴ 2014년 5월 15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⁷⁵ 이 기자회견 현장의 배경으로는 아이를 안고 있는

74 『朝日新聞』 2014년 5월 3일(朝刊). 개정의 주요 타깃은 헌법 제9조와 제96조다. 주 16)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9조는 전쟁포기와 전력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것이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자위권 행사에 대한 족쇄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헌법 개정 발의에 중참(衆参) 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96조이며,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9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75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15일(<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7289.html>, 최종

어머니와 불안한 표정의 아이의 그림이 이용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여성 자위관을 전면에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⁷⁶ 〈그림 3〉은 『주간문춘』(週刊文春) 3월 28일자에 게재된 광고로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 안전보장의 기본이념입니다”라는 카피가 쓰여져 있다. 지역민 아이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는 여성 자위관은 이 논문에서 언급해 온 카무플라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젠더 주류화의 문제점은 평화유지 임무에 ‘여성 수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병사가 너무 많다’는 문제에는 관심을 덜 어지게 한다는 것이다.⁷⁷ 군인은 최고의 평화유지자가 아닐 수 있으며, 군대는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적의 조직이 아닐 수 있다.⁷⁸ 오늘날 평화유지군 여성에게는 군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해독제’로서 맡은 임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그것이 파견된 나라를 (새로운 방식의) 식민지화 하는 임무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도록 요구된다. 젠더 주류화는 우리가 전쟁, 군대, 점령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여군에 의한 카무플라주에 대해서 논했다.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군은 이미 평화유지자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고,⁷⁹ 한국 국민은 군대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독자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점도 존재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의 해병대와 육군은 여성을 모집했다. 모집된 여성들은 군대 임무를 담당할 동시에 남성을 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되었다.⁸⁰

검색일: 2014. 4. 20).

76 이 광고는 내각부대신관방 정부홍보실(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gov-online.go.jp/pr/media/magazine/ad/284.html>, 최종 검색일: 2014. 4. 20).

77 Sandra Whitworth, *Men, Militarism & UN Peacekeeping: A Gendered Analysis*, p.71.

78 이 부분에 대해서는, Sandra Whitworth, *Men, Militarism & UN Peacekeeping: A Gendered Analysis*.

79 Seungsook Moon, “Gender, Militarization, and Univesal Male Conscription in South Korea,” Ann Lorentzen and Jennifer Turpin, eds., *The Women & War Reader*,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pp.90~100.

80 1950년 8월 24일자 『부산일보』에는 “꺾기한 여자의용군, 비겁한 사나이는 자성하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육군본부, 『육군여군 50년발족사』, 육군본부, 2000, 85~86쪽).

한편, 휴전이 되고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1970년 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⁸¹ 여군의 존재 가치는 의심스럽게 되었다. 여군은 ‘여군 무용론’을 극복하고 군대에 머물기 위해서 타이핑 기술을 습득하고,⁸² ‘미스여군선발대회’를 개최⁸³해 여군의 유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성 통합이 본격화되는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움직임을 이끈 것은 군 대가 아니라 페미니스트운동이나 대통령의 지시, CEDAW의 비준 등과 같 이 군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었다.⁸⁴ 최근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수석 졸업 생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려 한 것⁸⁵이나 ROTC 학교평가 제도를 변경 한 것⁸⁶에서 여성에 대한 군대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군 평화유지(PKO) 활동을 담은 사진에서 지역민들을 치료하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 여군의 모습은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광경이 다.⁸⁷ 여기에는 평화적으로 지역민들을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가 엿보이며, 여성 통합에 소극적이면서도 좋은 군대 이미지를 만들기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여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군의 카무플라주에 여군이 이용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군대가 확고한 지위를

- 81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ersity Press, 2005(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83~84쪽).
- 82 한글타자기가 개발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여군인 홍소운 대위는 여군의 특기에 타이핑기술의 도입 을 추진했다(육군본부, 『육군여군 50년발족사』, 141~142쪽).
- 83 여군의 홍보를 위해 대회에 입상한 3명은 민간 미스서울 예선에 참가했다. 이 대회를 계획한 것은 여 군 최고 계급이었던 현성원 대령이었다(육군본부, 『육군여군 50년발족사』, 225쪽).
- 84 주찬진, 『한국 여군의 구조적 쟁점에 관한 사회학적 일고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0.
- 85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수석이었던 여성이 대통령상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서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되었다. 질의 결과 공군사관학교 교장은 재심의 하겠다고 대답했 다(『세계일보』, 2014. 2. 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19/20140219004887.html?OutUrl=daum>, 최종 검색일: 2014. 4. 20).
- 86 한국군은 2014년 2월 20일, 여자대학교 ROTC가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에서 1등을 하자, 순위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여자대학교가 1위인 것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서울신 문』, 2014. 2. 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21011010>, 최종 검색일: 2014. 4. 20).
- 87 한국 국방부 국방홍보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방화보』에는 PKO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군의 모습이 게재되어 있다. 현지 아이들과 여성을 진료하고(『국방화보』, 2006년, 134~135쪽), 소녀 얼굴에 태극 기 스티커를 붙이고(『국방화보』, 2008년, 132쪽), 소년에게 부대 기념 T셔츠를 나누어주는 모습(『국 방화보』, 2011년, 93쪽) 등을 볼 수 있다. 『국방화보』는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ebook.dema.mil.kr/home/index.php>, 최종 검색일: 2014. 4. 20).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국민들이 군대 및 그 임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 보게 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위대의 카뮈플라주는 한 국군의 미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육군본부(2000), 『육군여군 50년발족사』, 육군본부.
- 佐藤文香(2004), 『軍事組織とジェンダー』,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Carreiras, Helena(2006),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London: Routledge.
- Enloe, Cynthia(1983),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sation of Women's Lives*, London: Pluto Press.
- Enloe, Cynthia(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on, Seungsook(2005),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ersity Press[이현정 역(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 Sasaki, Tomoyuki(2009), *An Army for the People: The Self-Defense Forces and Society in Postwar Japan*, Michigan: UMI. Dissertation Publishing.
- Segal, Mady Wechsler(1995), "Women's Military Roles Cross-Nationally: Past, Present, and Future," *Gender & Society*, 9(6).
- Whitworth, Sandra, 2004, *Men, Militarism & UN Peacekeeping: A Gendered Analysis*,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 Wiegand, Karl L., 1992, "Japan: Cautious Utilization," *Female Soldiers—Combatants or Noncombatant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Goldman, Nancy Loring ed.,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